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성체성사의 제정 | 성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 모자이크(불가리아 소피아)

## † 오늘의 전례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루카 9,11ㄴ-17 참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오천 명은커녕 사도들의 땀거리로도 모자랍니다. 오늘날에도,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남 걱정을 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봉헌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온 세상을 먹이고도 남는 양식, 곧 성체와 성혈로 변하여 되돌아옵니다.

**제1독서** 창세 14,18-20

**제2독서** 1코린 11,23-26

**복음** 루카 9,11ㄴ-17

**입당송**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화답송**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합니다.

신장호 스테파노 신부 | 근화여자고등학교 교목실장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음식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장정만도 오천 명 가량이나 되는 인원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천 명 가량이나 되는 인원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나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두 가지 특별한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축복과 감사의 기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루카 9,16). 예로부터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음식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수고의 열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들은 다음의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난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과 비를 받지 못하면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없음.’ 그래서 감사드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밥상머리에서 자녀에게 으뜸으로 가르쳐야 하는 교훈은 ‘감사’였습니다.

미사와 성체성사를 일컫는 ‘에우카리스티아’는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 대한 감사와 찬미는 가장 원초적인 신앙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과 직접 관

련되는 음식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탈출기 16 장). 그리고 놀랍게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와 찬미는 우리 자신에게 축복으로 되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없느냐의 작은 차이가 실로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감사의 마음은 나눔을 실천하게 합니다. 라틴어 격언에 “Nemo dat quod non havet.”(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자신’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알고 있듯이 꽃동네 최귀동 할아버지의 사연은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축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신비를 교회 는 기쁜 소식으로 선포합니다. 미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 분과 하나 됨을, 그리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기적...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사랑의 신비, 신앙의 신비의 식탁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

#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5)

이번 호부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장 중요하고도 독창적인 문헌이라 할 수 있는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이하 사목헌장)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헌장은 교회헌장과 더불어 공의회가 가장 뜻 깊은 결실이며, 또한 의외의 수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도 사목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문헌이 초안에 포함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스스로가 이 문헌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현대인들

사목헌장은 바로 이 말,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현대인들”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교회가 인간 세상에 대해 무엇이든 가르치려 할 때에는 늘 원칙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답을 내는 이른바 ‘연역적’ 방법을 택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사목헌장은 현대인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는 ‘귀납적’ 방법으로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사람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의 공포를 겪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시대였으며, 동시에 인간의 어리석음과 비참함에 절망하는 시대였습니다. 현대인들은 과연 인간의 존엄이 있는가, 있다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고 있었습니다.

##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목헌장이 제시하는 인간 존엄의 근원은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헌장을 들여다보면서 공부한 대로, 하느님 계시의 정점이자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회는 사람이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인간 존엄성의 근원도 하느님 계시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창조와 구원 안에 인간의 존엄이 있고 인간 세상의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 하느님의 모상이자 예수님의 형제

사목헌장은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느님 홀로 이러한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당신 아들 안에서 계시를 통하여 그 해답을 주신다.”(41항)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본성을 닮게 창조된 사람은 그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느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죄를 빼고는 인생살이의 모든 조건들을 다 받아들이셨으며, 우리 사람을 벗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존귀합니다. 아무리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입니다. **▶▶▶**

이번 주 ‘신앙의 해 교리 퀴즈’는 6면에 게재됩니다.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세 1,26)고 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뜻대로 자연을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숭고한 일이라는 의미이지만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권한이 마치 영구적인 것인 양 착각하며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위들은 결국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마태 24, 45-51).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공교롭게도 현대인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이익은 결국 소수의 자본가에게 돌아가고 그 피해는 국민 대다수가 입는 현실이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진리를 역설적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풍광이 좋은 산골마을에 들어서는 골프장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주민들은 현재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4대강 사업은 많은 이들의 우려처럼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유지비와 관리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영광 핵발전소의 무리한 운전은 우리의 미래가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사태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하며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영양댐을 비롯한 불필요한 댐건설은 백지화되고, 4대강 사업의 정확한 평가와 함께 전면수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에너지 수요와 공급, 관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숙고 없이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일련의 환경파괴현상들은 마치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마태 24, 48)하며 맡겨진 것을 자신의 것인 양 낭비하며 착취하는 불충실한 종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자신과 자연만물을 잘 보전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충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확실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현재와 미래의 위험한 행위와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재정비해야 합니다. 충실한 종처럼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룩하고 위대한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연만물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랑만이 우리를 하느님의 빛이 되게 합니다.

2013년 6월 5일 환경의 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 용 훈 주교

## 나눔의 기적

어느 날 한 신부님께서 강론시간에 초코파이 한 상자를 제대에 두고 보리빵과 물고기의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들 귀가 솔깃했습니다. 제대 위의 상자에는 봉지에 든 열두 개의 초코파이 밖에 없는데 상자를 바라보는 신자는 무려 수백 명이나 되니, 모두들 설마하면서도 현대판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윽고 신부님은 제대 위에 있는 상자를 열어 신자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역시나 초코파이는 열두 사람에게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초코파이를 손에 쥐 열두 명의 신자는 마치 보리빵과 물고기라도 받아든 양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나머지 신자들은 허탈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신부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요.”, “신부님은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봉지가 닫혀 있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등 서로 제각기 다른 대답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신자들의 대답을 다 들으신 신부님께서서는 신자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당당한 답인 듯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답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은 신기한 사건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느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눌 줄 알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필로**

### 금주의 성인



#### 성 가롤로 르왕가 (6월 3일)

19세기 말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무왕가 왕의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하였다. 그 가운데 한 분이신 가롤로 르왕가 성인께서는 무왕가 왕의 부하였는데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동료들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열성을 다하였다. 왕의 분노를

산 성인과 다른 동료들은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시다가 화형 또는 참수를 당해 순교하셨으므로 오늘날 우간다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에 의해 21분의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시성되신 가롤로 르왕가 성인께서는 아프리카 가톨릭 청소년 활동단체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 ■ 교구장 대주교님 미주지역 사목방문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17일(금) 미주지역 사목방문을 위해 출국하시어, 5월 18일(토)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이동섭(광현 아오스딩) 부제의 사제 서품식에 참석하셨다. 또한 5월 22일(수)부터 볼리비아의 아빠레시다 본당에서 견진성사를 집전하시고, 성 안토니오 본당을 방문하셨으며 살바도르 본당 20주년 행사에 참석하셨다.



## 신앙의 해 교리 퀴즈⑦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어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의 목숨을 대신 바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 )은 다음과 같다. 그분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마태 20,28).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요한 13,1) 그들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헛된 소행에서 (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622항)

-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성령 강림 대축일(5월 19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⑥ 정답은 <하늘 나라, 하느님 나라>입니다.

당첨자 : 지영미(마리스텔라, 옥계), 구수이(세실리아, 계산), 손혜영(루시아, 사동), 두도자(체칠리아, 황성성당), 양기홍(루도비코, 형곡)

## 예수님을 본받아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안내

|                         |                                 |                      |                        |
|-------------------------|---------------------------------|----------------------|------------------------|
| 6월 후원자가정을 위한<br>월례미사    | 6월 3일(월) 11:30<br>한국 SOS어린이마을성당 |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br>월례미사 | 6월 3일(월) 11:00 죽도성당    |
| 경주지역 군중후원회<br>월례미사      | 6월 3일(월) 11:00 성동성당             | 꾸르실리스타 월례미사          | 6월 3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
|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br>선교회 월례미사 | 6월 3일(월) 11:00 계산성당             | 지속적인성체조배회<br>월례미사    | 6월 3일(월) 22:00 한티순례자의집 |
|                         |                                 |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 6월 8일(토) 11:00 성모당     |

## 성소 | 피정

###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6.8(토) 16:00

장소: 예수회 한국관구 본부

주제: 부제들이 들려주는 성소이야기

문의: (010)8589-9880

vocsj@hanmail.net

###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기간: 6.8(토) 17:00~9(일) 14: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만32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8353-2323

### 2013 상반기 성소 식별 피정

기간: 6.8(토)~9(일) 1박 2일

장소: 포교베네딕도회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313-3431

### 군중후원회 일일 피정

일시: 6.3(월), 교구청 교육원 대강당

강사: 정태우(아우구스티노)신부

주제: 신앙의 해와 평신도

문의: 군중후원회, 256-0815

###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6.7(금) 18:00~9(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

(043)213-9103

###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3일: 6.14(금) 17:30~16(일)

4박5일: 6.17(월) 14:00~21(금)

8박9일: 6.24(월) 14:00~7.2(화)

황혼의 삶: 6.8(토) 15:00~9(일)

문의: 성심수녀회, (031)946-2337~8

###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6.18(화)~19(수), 매월 셋째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교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 렉시오디비나(성독) 심화 피정

기간: 8.7~11(4박 5일), 40명(1인 1실)

장소: 왜관 피정의집(피정비 27만 원)

주제: 사막교부들의 8가지 악덕

지도: 허성준 가브리엘 신부(OSB)

문의: (010)4127-5758

## 교육 | 모집

### 프란치스코 청년회 모집

일시: 6.9(일) 13:00

장소: 월배 프란치스코기념

문의: (010)4710-8564

### 순교자현양회(서울대교구) 일본성지순례

일자: 7.8(월), 다른 날짜 전화 문의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등

해설·강의: 김길수 교수

회비: 57만 9천 원 (4박 5일)

문의: (02)318-7202

(02)778-5100

### 마신부님 아일랜드 · 영국 영어연수

기간: 7.23(화)~8.15(목)

초등: 기숙사 / 중·고: 홈스테이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시아엔티,

(02)3446-4253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교),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팡팡스크린골프존**  
이 남 희 (세례자요한)  
T.(053)571-6611~2

3050평 + 학교  
방안(대형) 300평 + 학교  
제일고등학교  
팡팡스크린골프존  
대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 동서주와 6대가능(1,000평 대지) · 스크린 9종 · 실내온도 7월 완비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곽앤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소변에 거품이 나십니까?**  
**수내과**  
[부설 :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민역 ☎(053)642-7575

**성모아이한의원**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아노증/성장장애 · 감기예방

“먹기 좋은 딸기맛 증류한약”  
한 의 학 박 사  
현 통국대 한의학과 교수 김 성 철(비오)  
☎ (053)592-1275

**HS 의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 행사 | 모임

### 제29차 교구 올드레아

일시: 6.15(토) 9:30~16: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문의: 254-4671

### 작은예수회 창립29주년 6.7 감사제

일시: 6.7(금) 11:00~16:30

장소: 경기도 현리 작은예수회마을

강론: 박성구·김종일 신부(지역별 출발)

문의: (02)777-6444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 교육 | 모임

###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 학교 개설(주간)

기간: 6.24(월)~28(금) 13:3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수강료: 1인 3만 원(교재비 포함)

신청마감: 6.16(일) 17:00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 정평위 '함께꿈' 월레미사 및 특강

일시: 6.12(수) 19:30, 1대리구청 강당

주제: 장애인과 함께 한 예수의 삶

강사: 정중규 박사

주최: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교육생 모집

생활 일본어, 천연 비누·천연 화장품,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우쿨렐레,

통기타, 대금, 리본공예, 켈트, POP,

초크아트, 토폰인팅

문의: 476-6211

### 본당사회복지학교(기본-주일반) 개설

개강: 6.16(일), 과정: 12시간(총 4주)

대상: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3대리구 사회복지, 641-3456

### 시편성가, 발성법, 연주

일시: 6.2(일) 15:00, 회비: 1만 원

강사: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 Show Bible : 베드로 · 바오로

성경 속 인물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기간: 6.4~7.2(매주 화), 19:00~21:00

장소: 바오로팔서원 (청년: 2만 원)

문의: 양채사리아 수녀

(010)2503-5185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교육생 모집

개강: 6.3(월) 월, 수, 금 18:00 / 토 14:00

과정: 취업반, 자격증취득반, 봉사자반

대상: 남녀, 학력, 나이 제한없음 (주4회)

문의: 대가대평교원, 660-5554~7

### 14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1차: 6.23(일), 8, 12주

2차: 8.25(일),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21회 청소년 필리핀영어연수(4주)모집

### 가르멜 수도회 특별 영성강좌

일시: 6.20(목) 10:00~16:00

장소: 대명성당, 참가비: 무료

주제: 하느님과의 우정으로서의 기도

강사: 막시밀리아노 신부(스페인가르멜소속)

문의: (010)4917-2625(도시락 치참)

### 가톨릭신문 코루즈 성지순례

기간: 8.23(금)~9.2(월), 10박 11일

장소: 이탈리아·그리스·터키 3개국

내측 508만 원, 오션뷰 538만 원

발코니 568만 원(대한항공 이용)

문의: 428-5004, www.cttour.org

## 채용 | 안내

### 대건인쇄출판사 직원채용

기간: 6.3(월)~14(금) 17:30까지

자격: 국전 옴셋(MITSUBISHI) 기사

서류: 이력서 지참, 직접 방문 제출

문의: 252-6737

###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 사이버 상담

문의: 253-1401

http://www.with1401.or.kr

### 2013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3천 원(총 90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주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동 3번 출구 앞 뚝개에 위치

우리 아이 첫보약은 원방한의원에  
**원 방 한 의 원**  
前 대구가톨릭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털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백두정형외과**  
의학박사/원장 배상근  
(베드로)  
소아청소년과 배상영  
(미카엘라)  
허리통증 인공관절  
관절경 수술전문 (어깨 무릎 발목)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구) 백두정형외과 T.(053)425-5919

**나가사키성지순례**  
제3차 6월05일~08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귀금속 최고가 매입**  
순금, 백금, 18K, 14K  
다이아몬드, 은수저, 치아금  
황금점: 황금동 데레사소비센터 內  
북현점: 북현동 농협 하나로마트 內  
(주)한국금은거래소 ☎ 763-8838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